



[산업]
총돌 예상되면
벨트 자동밀착
모비스, 안전기술 진화

08



코스피 2009.13 (0.00)	→	코스닥 631.15 (0.00)
금리 (국고채 3년) 1.27 (+0.01)	↑	환율 (원·달러) 1196.90 (-3.30) (6일)

'조국 가족펀드' 논란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억원 이상 가입 등 제한을 두고 있는 사모펀드는 10억원으로 제한을 둔 운용사도 있어 '부자들의 재테크' 펀드로 불린다. 사모펀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프라이빗한 투자가 가능해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처음으로 4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사모펀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최근 논란으로 허점이 부각된 사모펀드의 그림자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슈퍼리치'만의 리그 최소 10억원 투자도

사모펀드의 세계

<1>자산가의 재테크

사모펀드는 규제가 많은 공모펀드와는 달리 규제가 많지 않다. 투자전략이 다양한 만큼 수익률이 높고 소수(49인 이하)에게만 비공개로 투자 기회를 열어 준다는 점 때문에 고객자산가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말 20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말 331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지난 3일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은 390조9517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펀드 수도 1만 1450개로 공모펀드(4206개)의 2.7배 수준이다. 지난 2015년 10월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지고 회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펀드 투자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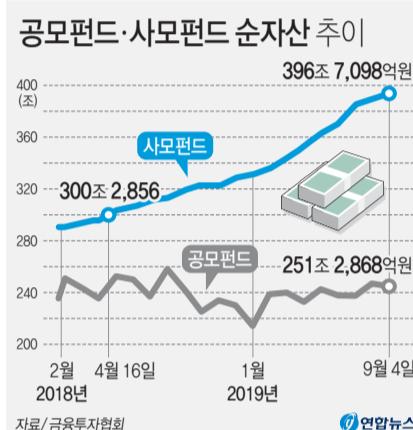
◆ 최소 가입금액

10억원 이상도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운용사 중에는 최소 10억원을 내건 곳도 있어 서민들의 진입이 어렵다.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이유다. 또 기관투자자와 법인도 사모펀드의 고객이다. 다수가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펀드 가입자가 49인 이하로 제한돼 있어 투자금액을 3억원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사모펀드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증권사나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가입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인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다. 다른 하나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다. 한진칼 지분을 취득한 후 한진그룹 경영참여를 시도한 KCGI, MBK파트너스가 코웨아이나 힙플러스 등을 인수할 때 PEF를 활용했다.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가 더 일반적이다.

공모펀드는 주식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모펀드는 종목당 제한이 없는 것이 특



정이다. 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사는 롱(Long) 전략과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팔아 차익을 남기는 숏(Short) 전략을 활용할 경우 공모펀드는 숏 포지션에 30% 제한이 있지만 사모펀드에는 같은 제한이 없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태임풀리오자산 운용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펀드 운용 시 제약조건 때문에 운용하기 쉽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린다"며

"사모펀드는 숏 포지션에서도 원하는 만큼 분산 투자 할 수 있어 적절한 위험분산이 가능해 수익률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모펀드는 2016년 공모펀드 시장

을 처음 역전했으며, 이후 격차를 더 벌이는 중이다. 지난 3일 기준 공모펀드 규모는 249조2564억원으로 사모펀드에 비해 141조7000억원이 더 적다.

◆ 가장 인기 있는 투자대상은 부동산

사모펀드는 투자대상 제약이 적어 상장주식은 물론 장외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에도 투자를 한다.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다. 지난 3일 기준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는 86조7913억원으로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기관, 리테일 자금이 부동산 사모펀드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어려움으로 변동성도 높고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채권의 기대수익률 역시 낮아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베트남에 개성공단式 산업단지 조성 추진

증기중앙회, 베트남 정부와 협력
양국 원활하는 상생형 공단 제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가 베트남 정부와 손잡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베트남은 땅과 인프라를, 우리 기업들은 기술과 공장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자금투자를 통해 양국이 모두 원활할 수 있는 상생형 공단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

베트남은 아세안(ASEAN)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역액, 투자액, 인적교류 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나라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 내 대규모 인프라와 에너지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모하고, 첨단 산업·농업, 스마트 도시 등 신사업 분야

에서 폭넓게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에 동행했다가

베트남 하노이에 들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6일 오전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부영 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지난 5일 면담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구상한 공단 계획을 발표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공단의 위치, 형식 등에 대해 우리측에게 추가

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베트남 정부에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경제성장률 6.88%(2018년 1~3분기), 경제활동인구 5340만명(2017년), 평균 연령 29.2세(35세 미만이 전체의 약 60%), 2025년 인구 1억명 돌파 예상 등 성장속도가 빠르고 잠재력이 풍부한 베트남에서 한국기업들이 현지 인재들을 활용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016년 초 호치민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사무소의 기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 4일 제26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난 그는 당분간의 조직 운영 계획도 밝혔다.

<3면에 계속>

/하노이(베트남)=김승호 기자 bada@



태풍 '링링' 피해복구 상황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태풍 '링링' 피해

사후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韓 조선업 부활 기지개… 4개월째 수주 1위

8월 조선업 실적·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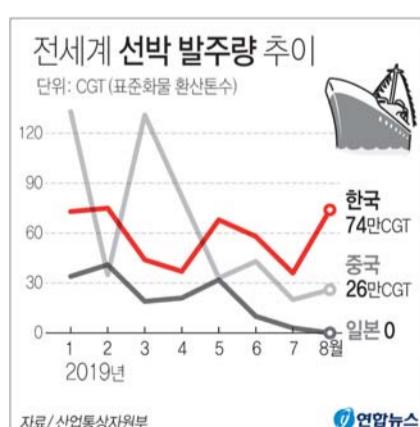
전세계 발주 중 73.5% 내내
업계 고용도 11만명 대회복

한국 조선업 수주량이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발표한 '8월 조선업 수주 실적 및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 100만CGT(표준화물 환산톤수) 중 한국이 73.5%에 달하는 73만5000CGT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최다 수주량이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물량 3척 중 3척을 모두 수주 했고, 탱커 14척 중 13척(LNG 연료추진선 10척 포함)을 수주했다.

지난달 수주 성과에 힘입어 1~8월 수주금액(누계)은 한국이 113억달러(약 13조5000억원)로 중국 109억3000만달러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회복했



다. 1~7월 누계 금액은 중국 104억달러, 한국 96억달러였다.

1~8월 수주량 기준으로는 한국이 세계 전체 발주량의 34.9%인 464만CGT를 수주해 중국 502만CGT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한국 조선업이 선전하는 이유에 대해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해석했다.

1~8월 발주된 LNG 운반선 27척 중 24척, VLCC 17척 중 10척을 한국이 수주했다. 중국, 일본 등의 자국 발주와 수주 물량을 제외하면 전세계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이 수주했다.

지난 1~8월 건조량은 676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0% 증가했다. 수주절벽으로 인해 지난해 건조량이 최저점인 772만CGT까지 떨어졌지만, 2017~2018년 수주가 점차 늘면서 지난 4월 이후 월 건조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조가 늘어남에 따라 조선업 고용도 지난해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늘어나 지난 8월 11만명대로 회복했다.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도 예정돼 있어 수주량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